

한-미 자동차안전 협력회의 열린다

- 9월 19일부터 워싱턴D.C에서 개최... 양국 간 협력각서 개정 등 협력강화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9월 19일(화)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 D.C에서 미국 도로교통안전청(이하, NHTSA)과 ‘제9차 한-미 자동차안전 협력회의’를 개최한다.
 - 한-미 자동차안전 협력회의는 2005년부터 자동차 분야 주요 정책을 공유하고 양자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양국에서 번갈아 개최 중이며, 양국의 제도 발전을 위해 현안 및 관심사항 등을 논의하는 회의다.
- 이번 협력회의에서 양국은 신차안전도평가, 리콜 및 결함조사, 안전기준 국제조화, 친환경차 및 자율주행 등 주요 자동차 정책을 발표하고 양국의 정책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공유 및 논의할 예정이다.
 - 특히, 배터리 등 전기차의 핵심장치의 안전성을 정부가 인증하는 자동차 관리법이 지난 8월 개정·공포됨에 따라, 향후 차량 제작사들이 적용받게 되는 관련 내용의 구체적인 절차 및 내용도 함께 공유할 계획이다.
 - 또한, 미국의 충돌·주행시험 및 연구기관도 방문하여, 양국의 차량 제작 안전 강화 및 소비자 안전확보를 위한 방안 등도 논의한다.
- 이번 회의를 계기로 국토교통부와 NHTSA는 양국 간 협력각서 개정도 추진한다. 국토교통부는 '06년 NHTSA와 협력각서를 체결하고 자동차 기술규정, 리콜체계, 신차평가 등의 분야에서 함께 협력하여 왔다.
 - 이번 협력각서는 양국의 협력분야를 친환경차 및 자율주행정책, 결함조사, 자동차 안전 관련 연구개발 등으로 확대하는 것으로, 이를 통해 양국은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.
-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양국이 지속적인 교류를 바탕으로 자동차 분야 전반에서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정책과	책임자	과 장	김은정 (044-201-3817)
		담당자	사무관	홍예표 (044-201-3846)



□ 배경 및 목적

- (배경) 우리부와 미국 도로교통안전청(NHTSA) 간 자동차 안전 분야 협력각서 체결('06) 이후 양국이 매년 교대로 협력회의 개최
* '14년 워싱턴 DC에서 개최 이후 중단되었다가, 제8차 회의는 서울에서 개최('22.9)
- (그간 경과) 자동차 기술규정 및 안전분야에서 제도개선 및 기타 개발과 관련하여 양국 간 정보교환을 포함한 협력 및 의사소통

□ 회의개요

- (기간) '23. 9. 19(화) ~ '23. 9. 20(수)
- (장소) 미국 워싱턴 DC
- (참석자) 한국 측 모빌리티자동차국장(수석대표) 등 4명
미국 측 Ann Carlson 청장대행(수석대표) 등 7명

□ 주요 활동내용

- (한-미 협력회의) 협력각서(MOC) 개정*, 제작결함(리콜) · 자동차 안전도평가(NCAP) · 자율주행 · 친환경차 등 세션별 주요 의제 논의
* (기존) 기술규정 개발, 리콜, 신차평가(NCAP) 중심의 협력분야
→ (개정) 자율차 및 친환경차 정책, 결함조사, 자동차 신기술 연구 등 협력분야 추가확대
- (현장방문) 연구기관(VRTC*) 방문 및 차량 충돌·주행 안전 등 논의
* VRTC(Vehicle Research and Test Center) : NHTSA 산하 연구기관으로 제작결함조사 수행·분석, 충돌예방 및 승객보호 연구, 자동차구조 충돌시험 및 주행시험 운영